

경제

“대형마트 진출 강력한 조례로 막자”

‘SSM 입점제한과 조례제정 위한 시민공청회’ 주장 소방점검 등 적극적 행정조치로 규제수단 다양화

지자체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4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대기업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제한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례 제정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종균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우회입점, 가맹점 진출까지 본격화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허가제,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주 1일 휴무제 도입 등 4가지 사항이 담긴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롯데마트 월드컵점 주차장 문제 등을 비롯해 소방점검, 식품위생점검 등 광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대형 유통

업체 규제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중소기업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자체가 규제 권한을 갖고 행정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지역상권 영향분석과 입점하려는 지역상권에 대한 상권 영향분석, 정기적인 지역상

권조사,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 입점 예정지에 대한 공청회 실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입점 규제 강화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 역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석주 호남대 교수는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비롯해 슈퍼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유통업체들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등 e비즈니스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지원 등 각종 정보를 통해 다각

적인 방법으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제정을 위한 정지권의 움직임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호권 광주시의원은 “15일 시의원 26명의 이름으로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이달 중 조례안을 마련해 11월 광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4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대기업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제한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이 지역상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평동 2차산단 분양가 m²당 19만6630원

평동 2차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분양가격이 전국 최저 수준인 m²당 19만6630원으로 책정됐다.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2차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해 오는 15일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다. 분양 면적은 38만547m²로, 나머지 9만1931m²는 외국인투자구역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4일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놓고 고민했으나 현재 최저가 수준인 m²당 19만6630원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m²당 60만원에 이르는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차액 1200억원이 3~4년에 걸쳐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애초 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해 분양가격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역 간 기업 유치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결국 ‘싼 가격’만이 타 지역 기업을 유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분양가격(m²당 20만5700원)보다 낮게 책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원시설이 분양도 안 되는데다 차입금리도 높아져 공장용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다른 지역의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모두 비교한 뒤 가장 싸게 했다”고 말했다. 분양 대상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업체는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빈곤층 7만9000가구

근로장려금 617억 앞당겨 지급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은 14일 광주·전남지역 빈곤층 7만9000가구에 근로장려금 617억원을 이날부터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 또는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전체 신청자 9만

5000가구 가운데 83.2%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다.

연간 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은 58만원이고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64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광주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9월말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빈곤층의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급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 1000명 당 직장인 181명 전국 최저

광주는 300명 이상 ... 고용효과 높은 기업 많은 수도권 몰려

전남인구 1000명 가운데 직장인이 181명에 그쳐 인구 대비 직장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1000명 중 300명 이상이 직장인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14일 국제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연평균상 신고건수는 모두 1404만5580건으로 전체 추정인구 4954만367명 가운데 28.4%를 차지했다.

국민 1000명 가운데 284명이 직장에 소속돼 있는 임금생활자라는 것이다. 사·도별 인구 대비 직장인수는 인

원이 32.8%로 가장 높았고 울산 32.1%, 서울 31.1%, 광주 30.4%, 경기 30.1%, 부산 30.0% 등의 순이었다. 이들 6개 지역은 국민 10명 중 3명이 상이 직장인인 셈이다.

이는 수도권과 울산·부산 지역 등에 고용 효과가 높은 기업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직장인 비율은 18.1%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도 22.7%, 전북 23.2%, 강원 23.4%, 경북 24.2% 등의 순으로 직장인의 비율이 낮았다.

전남의 직장인 비율이 낮은 것은

제조업 등 인력고용 효과가 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는 광역시에도 직장인의 비율이 25.4%에 불과해 충남(25.5%), 경남(25.8%), 충북(27.7%)보다도 낮았다. 대전은 인구 대비 직장인의 비율이 28.7%로 전국 평균치와 비슷했다.

한편, 업체별 법인수 비중은 서울의 경우 도매업(43.1%)과 서비스업(47.4%)이, 인천·경기·울산은 고용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추석 中 中企자금 14조 푼다

중기청 ‘이란 피해’ 기업엔 150억 지원

추석을 전후해 시중 은행의 특별자금과 정부의 정책자금 등으로 14조 6000억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중기청에서는 14일 여의도 렉스톤 호텔에서 시중 은행장과 금융기관장이 참석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추석 특별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기청은 정책자금 405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액 5조5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정책자금 4050억원 중 2000억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 창업과 시설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조성한 금액이다.

시중 은행들은 특별자금 8조7000억원을 조성해 이달과 다음 달 사이

에 집중적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민간의 투자회복이 시급하다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당부했다.

중기청은 우리 정부의 이란 제재로 교역 중단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일시적인 경영으로 타개 자금으로 1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로 파악된 47곳의 기존 융자금 351억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란 교역 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사외이사

박병업 팬택 부회장 선임



금호타이어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박병업 팬택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팬택의 기업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점에 대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과 채권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박 부회장은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의 회생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날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차등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자비율은 대주주 100대 1, 일반주주는 3대1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15.25 (-3.61)
코스닥지수	481.79 (-1.70)
금리 (국고채 3년)	3.39% (-0.04)
원·달러 환율	1,161.70원 (+0.09)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우일렉 ‘말하는 스팀오븐’ 출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14일 듀얼 스팀을 이용해 웰빙 조리 가능한 ‘말하는 스팀오븐’(모델명 KR-S340N)을 내놨다. 이 오븐은 전자레인지, 그릴, 오븐, 발효, 건조 기능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듀얼 스팀 분사기능을 적용, 고온의 스팀으로 음식물 내 열분과 지방을 감소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불고기, 황태구이, 누룽지 등 한국식 요리는 물론, 치킨케사디아, 연어 스테이크 등 서양식 요리를 포함해 총 171종의 요리가 가능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격은 59만9000원이며,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11만원 보상판매 이벤트를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객실요금
4만원부터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담 한담 직접 케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